

김 영 진
 <농림부 축산국장>

축산에 관한 정책을 맡은지 오래지 않은 본인이 외람되어 회고라든가 전망을 하기 난처하지만 “한국가금협회”로부터 원고 청탁이 있었기에 그동안 느낀 점과 앞으로의 착상 등을 중요사항별로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1. 종계 · 부화사업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양계업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종계 · 부화사업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양계장에 닭이 없다면 사료도, 기구도, 기술도 쓸모없는 것이고 사업의 성패는 거의 종자의 양부가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양계업계의 종계에 관한 인식과 대책이 너무도 허술한데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국내의 종계 생산상황은 국가기관인 국립종축장이나 축산시험장은 예산상의

1. 종계 · 부화사업
2. 육종사업
3. 생산물유통
4. 질병

제약으로 제대로 육종사업을 수행하지 못해왔고 민간종계장은 극히 일부의 양계가를 제외하고는 자체육종에 의한 우수종생산은 염두에도 없고 앞을 다투어 외국에서 소위 P.S.(부모계나 G.P.S.(조부모계)를 도입하여 C.C.(실용계)를 부화 · 판매하는 것만을 위주로 경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축산이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이를 보살피고 이끌어 갈 “축산법”이 1963년 6월에 공포된 것이므로 현재는 보완을 요하는 몇가지 조항이 있는데 양계관계를 볼 때 “법” 제정당시는 거의 모계부화(母鷄孵化)에서 기계부화(機械孵化)를 장려하려는 의도하에 부화장은 등록하도록 규정하고도 등록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은 물론 제제 또한 극히 경미하고, 부화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종계장에 관한 규제는 취급되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개

□ 정부시책방향 □

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가. 종계도입(P.S. 및 G.P.S.)

현재까지의 도입수수보다 점차 감소 도입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전환하고자 하며 신품종(新品種) 도입은 도입이전에 국내에서 다른 품종과 같은 조건에서 능력검정을 실시하여 다른 품종보다 상당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때 도입을 허가하므로써 점차 국내에서 개량 육중한 품종에 비하여 도입종이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므로써 국내산 종계보호의 일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처럼 계대(繼代)가 되지않는 P.S 및 G.P.S는 계속적으로 도입을 제한하는 반면 계대가 가능한 순종(pure strain)은 가급적 도입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지만 도입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나. 부화·종계사업 규제

축산법의 미비점을 이용한 난립된 부화, 종계장을 정비 규제할 수 있도록 축산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현실정에 맞도록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양계가의 피해를 최대한 억제토록 조치하고자 추진중입니다.

2. 육종사업

이는 전항의 종계장 및 부화장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대강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종계도입과 국내육종에 대하여 찬반의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적인 도입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육종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으며 그 결과 꼭 성공적인 성과를 기할 수 있겠는가, 성공했을 경우 여하히 하여 투자자금의 회수를 기할 것인가, 결과가 만약 외국산 병아리보다 성적이 미달할 경우 사료효율이 낮으므로 인하여 외화를 소비하면서 도입된 사료의 낭비문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실로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우려를 표하면서 결과적으로 기히 개발한 우수종을 싼값으로 도입하여 소득증대를 기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대의 의견은 종계도입으로 인하여 그나마 싹트던 국내육종의 계기마저 강그리 짓밟았고 종계라고 하기에는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사실상 계대(繼代)가 되지 않는 이형(異型)유전자로 되어있는 부모계, 조부모계 등이므로 이는 매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될 뿐 아니라 어느 시기에 가서는 독립해 보겠다는 의지마저 앗을 것이고 수입수량 및 금액이 매년 증대되어 안전한 외국의 병아리시장이 될뿐만 아니라 신종질병마저 부산물로 도입되게 되므로 약간 우수한 정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도입계의 공과는 본 잡지를 통하여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도입에 의하여 잡자면 국내양계에 바람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고 오늘날 국내육종의 필요유무를 논하게도 되었지만 무서운 질병의 도입은 앞으로 계속적인 큰 문제로 생각된다. 여하간 본인의 생각으로는 국내육종은 필요불가결하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힘 자라는데까지 협조할 생각입니다.

사실 정부는 정부대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이나 다만 넉넉치 못한 자금이 소망스런 육종의 성과 거양에 큰 장애가 되어 있습니다.

3. 생산물 유통

유통상의 중요한 사항은 얼마나 좋은 질의 기호성있는 제품을 어떠한 유통경로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유통되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사실상 조절이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들 모든 유통요소들이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어느 부면이 더 중요한가는 판정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이하 단편적으로 구상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하며 아울러 세계의 동향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산물 가격의 변동은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주기적으로 당하는 고민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양계산물의 가격변동은 계절적이고 양돈은 3년 주기로 파동을 이루고 있는데 요전에 호주관

계 사람과 이야기 한 결과 그곳에서 돼지는 3년 소는 5년, 양계산물은 계절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지난 가을 소매가격이 타당(打當) 60센트 하던 계란이 금년 봄에는 40센트 정도로서 이런 결과는 봄철의 곡잉생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수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양계산물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입대체를 기하고자 하고있어 과거에 수입위주이던 영국 및 이태리 등도 이제는 사료만 도입하고 양계산물은 거의 완전한 국내자급을 이루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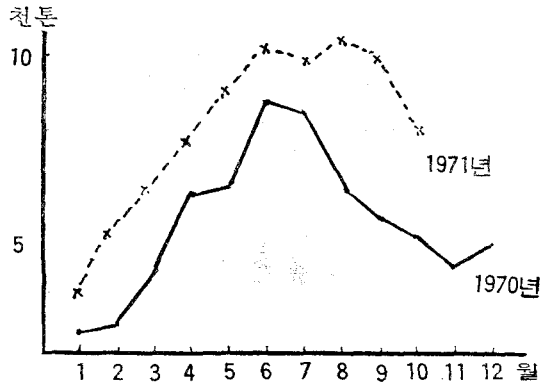
이와같이 각국이 국내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수출시장이 좁아지고 좁아진 수출시장에 수출하자면 막대한 결손을 감수해야 되는 데 닭은 생리적으로 봄은 다산기고 가을은 파산기라 계절적 가격변동이 없을 수 없고 실선도 유지상 저장에는 막대한 시설과 기술이 요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다산기에서 곡잉생산 될 때는 북반구에 위치한 대부분의 국가군들도 곡잉생산되기 때문에 싼 값으로 수출해야만 되므로 수출이라는 문제가 생각한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71년 후반기의 양계산물 가격이 곡잉생산으로 생산비도 못되어 여러가지 쓰라린 경험을 맛보았는데 이것을 더러는 경기침체에 의한 구매력

감소라고도 하지만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매력감소에 따른 문제보다는 오히려 곡잉생산에 의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표는 사료생산 실적인바 사료가 많이 생산되었다는 것은 바로 산물의 생산이 많아졌음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나. 산란계사료 생산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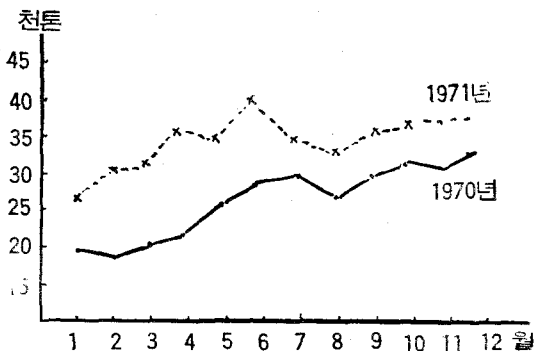
(1) 생산량표 단위: %

년도 구분 월별	1970년		1971년		증가율 (%)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1	19,342	19,342	26,522	26,522	137	137
2	18,656	37,998	30,539	57,061	163	150
3	19,979	57,977	32,620	89,681	163	155
4	21,778	79,755	37,724	127,405	173	160
5	25,872	105,627	35,525	162,930	137	154
6	28,696	134,323	40,880	203,810	142	151
7	28,909	163,232	35,626	239,436	123	146
8	27,511	190,743	34,066	273,502	123	143
9	29,601	220,344	36,845	310,347	124	140
10	31,472	251,816	37,012	347,359	117	139
11	31,310	283,126				
12	33,311	316,437				

가. 부로일리사료 생산실적

(1) 생산량표 단위: %

년도 구분 월별	1970년		1971년		증가율 (%)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1	3,078	3,078	4,124	4,124	134	—
2	3,177	6,255	5,110	9,234	161	148
3	4,513	10,768	6,428	15,662	142	145
4	6,452	17,220	7,736	23,398	120	136
5	6,983	24,203	8,764	32,162	126	133
6	9,112	33,315	10,290	42,452	113	127
7	9,040	42,355	10,182	52,634	113	124
8	6,887	49,242	10,570	62,204	153	128
9	5,868	55,110	10,353	73,557	176	134
10	4,684	59,794	8,290	81,847	177	137
11	4,651	64,445				
12	5,186	69,631				



□ 정부시책방향 □

유통체계의 불비와 계속되는 양계산물의 유통 가격 불황이 업계에 커다란 불안을 안겨주고 있어 이를 제거하는 방안으로 출하조합(Marketing Board) 형식을 도입해 보려고 업계 및 학계의 대표되시는 분들과 협의한 결과 원칙적인 구상은 좋은 것이라는 동의를 받은바 있어 세부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구상한 기본방향은 일정규모 이상의 양계가들을 회원으로 의무가입시키고 사양 수수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조합비로 납부하는 데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것이므로 주별 또는 월별로 분할납입케 한다.

생산된 계란 등은 조합을 통해서만 판매토록 하며 조합에서는 개인에게 판권을 줄 수 있다.

판권을 받은 개인은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조합에 납입케 한다. 산물의 등급 및 가격은 조합이 정하되 판권을 갖은 개인도 조합과 동일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하여 조합은 잉여산물을 가공, 수출, 저장하여 생산조건을 기하여 농가로 하여금 생산가를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법개정과 함께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협조없이 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합니다.

4. 질 병

대가축의 경우는 발생시 치료하면 회복된 가격으로부터 상당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으나 양

계의 경우는 잘못 하다가는 치료비가 닭값을 훨씬 상회하게 되므로써 어떤 가격보다 방역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의 과거 흐름은 국가에서 예방약공급은 물론 시술까지 담당하여 민간인이 완전히 국가에만 의존하고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을 차차 민간에게 이관하여 현재는 거의 민영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 :

(1) 희망할 때 희망하는 약을 손쉽게 구득할 수 있다.

(2) 자기 자신이 시술하므로 인력확보가 용이하다.

(3) 자기 돈으로 약을 구입하므로 약의 질에 신경을 쓰게 된다.

단점 :

(1) 지도, 계몽의 부족으로 일부 양계가를 제외하고는 올바른 시술결여로 소기의 효과를 기하지 못한다.

(2) 일부는 시설 및 기술 등의 빈약으로 양질의 약을 공급치 못한다.

(3) 제품의 유통과정이 완비되지 못하여 유통과정에서 역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근년에 활발해진 중계도입에 따른 신종 질병의 도입이 방역상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 상기 단점과 문제점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시해 나갈 계획이나 이는 오로지 양계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하에서만 실행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 월간 양계 구독 안내 ◆

1972년 1월호부터 아래와 같이 지가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년분 정기구독 : 1,500원
- 6개월분 " : 800 "
- 권 별 구 독 : 150 " (1권당)
- 합본(6개월분) : 1,500 "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상기금액에 해당되는 소액환을 아래주소로 등기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 가 금 협 회—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8-11 Tel. (26)0321